PORTFOLIO

KIMSANGHOON

a.k.a Autumn Writer

WORK'S HISTORY

2020.07 - 2020.12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업

현장 음원 녹음 기사

2020.12

영화 아카데미 단편영화

<위탁아> 동시녹음

2021.01

독립 장편 영화

<초원의 문> 동시녹음

2021.02

웹드라마 <라리라 스쿨> 동시녹음

< 영상 링크 >

2021.03

명지대 단편영화

<국물은 공짜가 아니다> 동시녹음

2021.03

JY네트워크 협력 인터뷰, 시상식 촬영 및 동시녹음

< 영상 링크 1 > < 영상 링크 2 >

2021.03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강사 교육 연수> 영상 총괄 제작

<영상 링크>

2021.04

증평 칸타빌 모델하우스 홍보 영상 스크립터 및 연출 보조

< 영상 링크 >

2021.04

바이럴 광고 <클리에어> 동시녹음

< 영상 링크 >

2021.04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강사 교육 연수> 영상 총괄 제작

2021.04

바이럴 광고

<봄날> 동시녹음

2021.04

바이럴 광고

<아바타> 동시녹음

2021.05

웹드라마 <만원만 더> 동시녹음

< 영상 링크 >

2021.05

숭실대 단편영화

<심부름의 미학> 동시녹음

2021.05

독립 단편영화

<붉은 달> 동시녹음

2021.05

웹드라마 <뒤로맨스> 동시녹음

<영상 링크>

2021.06

영월 홍보영상

동시녹음

2021.06

독립 단편영화

<비비드 자살여행> 동시녹음

2021.07

독립 단편영화

<세 친구> 동시녹음

이미지 준비 중

2021.07

저시력 교육용 홍보영상

동시녹음

2021.07

외국인 전통 무용 영상 (외교부-재외공관)

동시녹음

THE NEXT WORK IS YOUR

1990년, 32세 / 경기도 평택시 거주

010-9923-7869 / LoveKSHonly@naver.com

서원대학교 공연영상학과(연극영화) 졸업

2012.09 - 2013.03	글바람 작가
2014.03 - 2015.12	경비업체 경비 계약직
2017.03 - 2018.02	서원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실습조교
2018.04 - 2018.06	The Ronettes PD
2019.03 - 2020.02	서원대학교 공연영상학과 통합조교
2020.07 - 2020.12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업 현장 녹음 기사

#TAGS

#Premiere Pro #After Effect #Photoshop #Literoom Classic
#Final Cut Pro X #AVID Protools #MS Word #MS Power Point
#MS Excel #한글과 컴퓨터

#촬영 장비

Canon 6D MK2 & Canon 200D

Canon _ EF 24-70mm & EF 40mm & EF300mm

Sigma _ EF 24-70mm & EF 70-200mm

Canon _ EFs 17-85mm

Sigma _ EFs 18-200mm

#녹음 장비

SOUND DEVICE Mixpre 10T - II

Sennheiser MKH8060 & MKH 418 & Rode NTG2

Sony UWP-V1 4 Set

DIRECTOR'S HISTORY

당신을 기억하는 단 한 번의 시간

2015.06

FANTASY ROMANCE

원안 / 연출 / 편집

일 년에 단 한 번, 이 시간에만 찾아오는 그녀
낯설고, 낯익은 그녀와 나누는 달콤한 시간

https://youtu.be/YYHIB0PzYp0

오수

2015.12

ROMANCE & NOIR

편집

내 첫사랑은 매일 웃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 인생은 쓰고 소주는 달다고

그녀의 자전거

2015.12

ROMANCE & CONSIDERATION

각본 / 연출 / 편집

자전거를 통해 성장하는 그녀
그녀를 통해 자신을 보는 그

https://youtu.be/hkkxrv68Tjg

남과 여

2015.12

MV _ ROMANCE

각본 / 연출 / 편집

후회, 미련,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알지만, 잘 알지만

https://youtu.be/spbKMSg0x9s

Episode BLUE

2016.05

CONSIDERATION

각본 / 연출 / 편집

파랑과 검정, 그 사이에서 던지는 물음
우리는, 무슨 색일까

https://youtu.be/wPS1qXNqwLQ

그 때, 우리

2016.06

ROMANCE

각본 / 편집

서툴지만, 설레었던 그 때의 이야기
밥, 먹었어요?

https://youtu.be/U35cz_-6M3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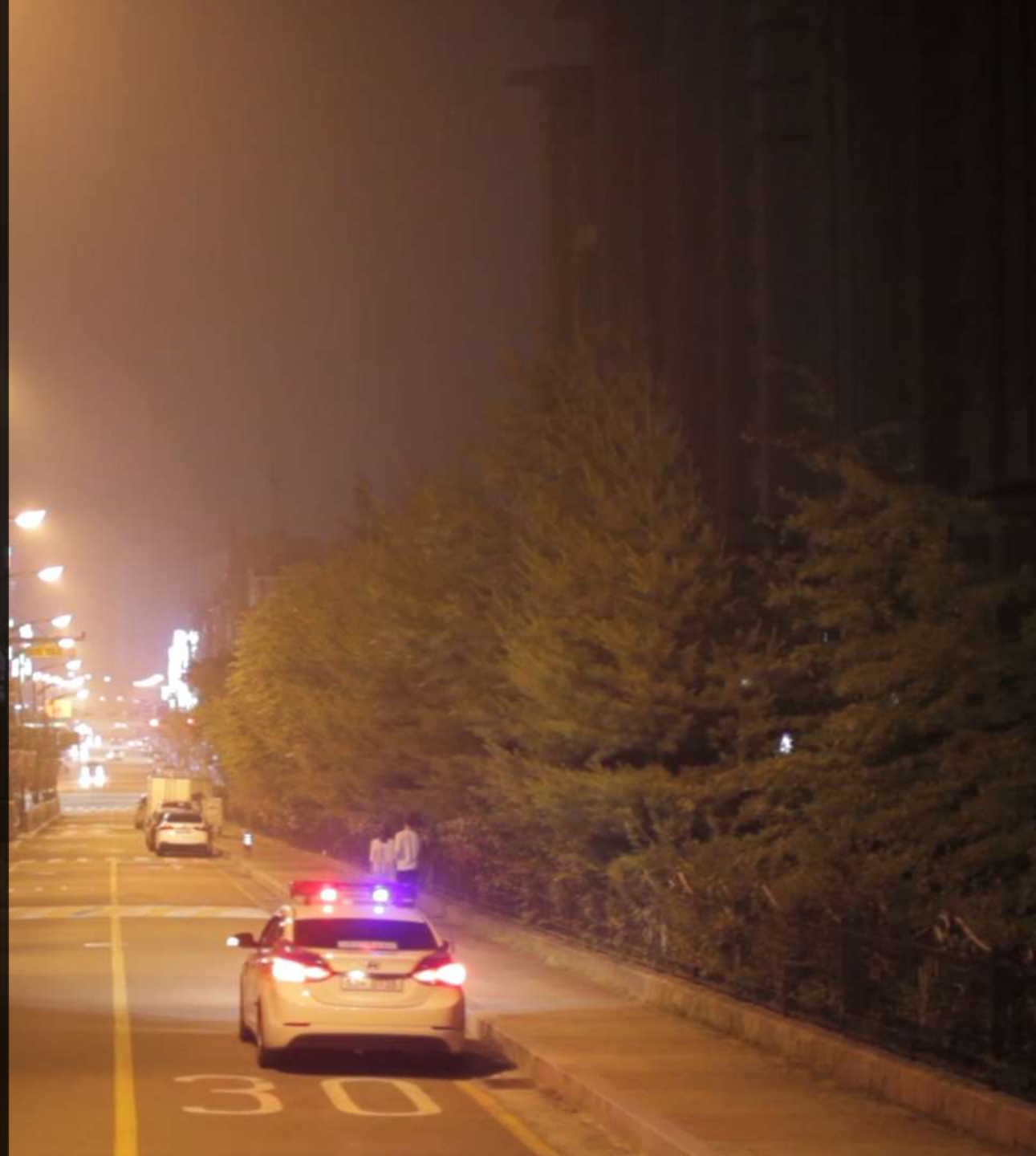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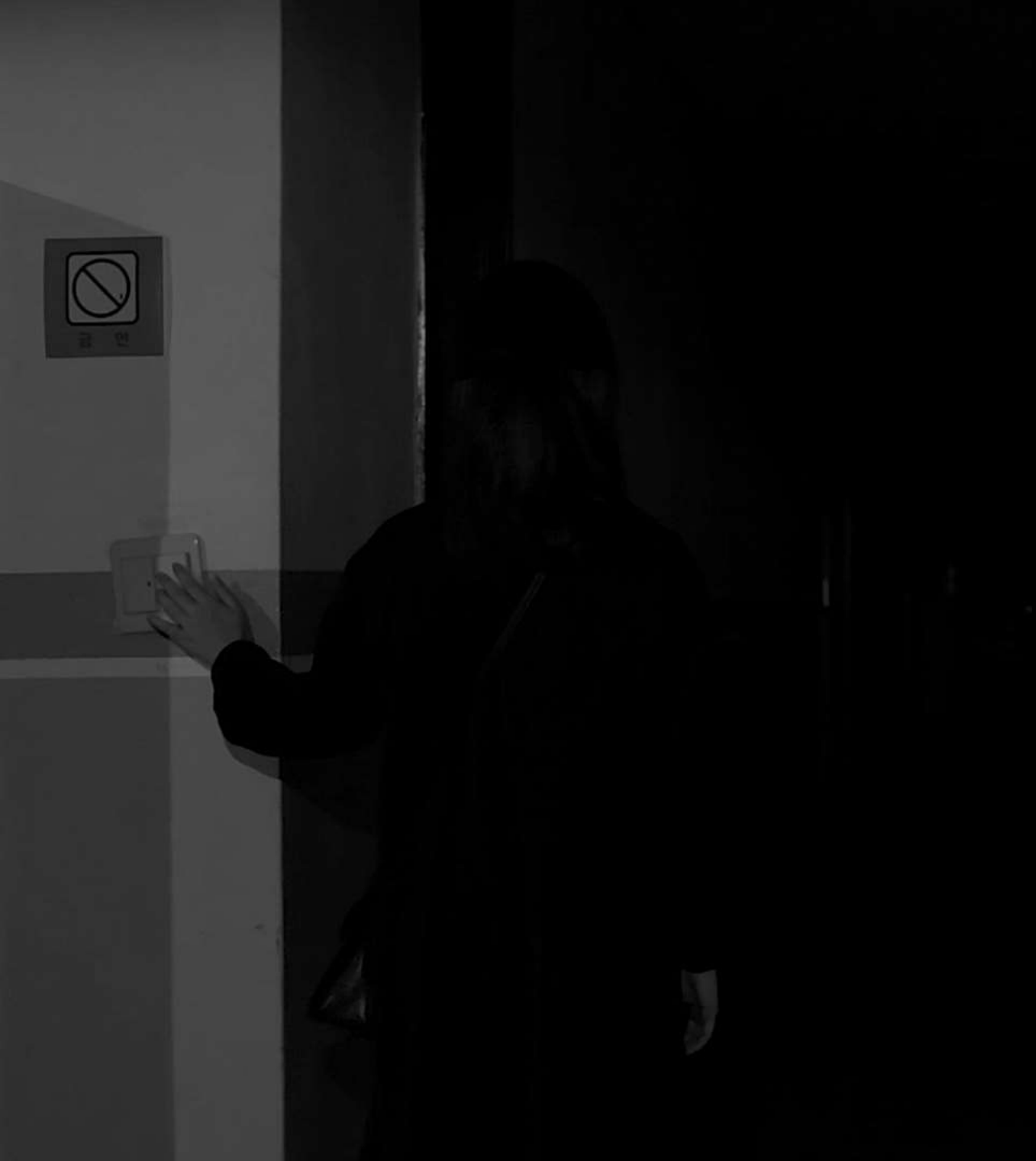
2016.06

경찰인권영화제 공모작

원안 / 편집

청주 흥덕 경찰서 협업 작품
경찰 및 국민의 인권을 위한 영화





Episode BLACK

2016.11

CONSIDERATION

각본 / 연출 / 편집

ㅅㅅ로 죽음을 택할 수 없다는 건
끝없는 어둠 속을 계속 걷는다는 걸까

https://youtu.be/r3CkQjbxtsE

The One

2016.11

MV _ ROMANCE

각본 / 연출 / 제작 / 편집

사랑해, 말할 수 없잖아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https://youtu.be/3IzmfWk2W5g

사노라면

2017.03

COMEDY & DRAMA

조연출 / 편집

배고픔, 자존심
죄책감, 무모함

여름과 입맞춤

2017.05

ROMANCE

각본 / 연출 / 촬영 / 편집

푸른 하늘과 녹색의 생명이 춤추는 여름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두 사람의 설렘

https://youtu.be/CBd3GgAjNlY

괜찮아

2017.11

CONSIDERATION

각본 / 연출 / 제작 / 촬영 / 편집

당신에게 필요한 한 마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마디

https://youtu.be/SAUzr34wJ68

Episode PINK

2019.11

CONSIDERATION

각본 / 연출 / 제작 / 촬영 / 편집

나의 겨울은 어땠는지 묻지도 못한 채
너의 겨울은 어땠는지 묻지도 못한 채

https://youtu.be/G5VFKnPJof4

CONTENTS HISTORY

촬영 & 컷편집

촬영

촬영 & 컷편집

기획 & 구성 & 편집

촬영 & 컷편집

2018 THE RONETTES CONTENTS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영상 시청 가능

촬영

촬영 & 컷편집

촬영 & 컷편집

자료 수집

기획 / 자료 수집

CREATIVE CONTENTS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영상 시청 가능

CREATIVE CONTENTS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영상 시청 가능

CREATIVE CONTENTS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영상 시청 가능

CREATIVE CONTENTS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영상 시청 가능

CREATIVE CONTENTS

이미지 클릭 시 해당 영상 시청 가능

NOVEL HISTORY

그들의 시간이 끝나자 세상은 소리를 잃은 듯 고요했다. 시간이 흐르고 있기는 한 건지 감각조차 잃어버렸다.

이곳에 왜 온 건지 이유 역시 잊어버렸다. 감정이 메말라버린 나는 볼품없는 동상과도 같았다.

2011 _ “사랑을 외치다”

삶의 염증이 곪고 또 곪아서 결국 터졌다. 아프기만 하고 낫지를 않는다. 상처가 번져서 결국 낫는 것을 포기한다.

영원히 아프지 않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어둠을 합리화한다.

2011 _ “꿈을 꾸다”

결국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감정은 살얼음판과도 같았을 것이다.

금방 녹아버리거나, 가볍게 깨져버리거나.

2011 _ “봄으로 말하다”

NOVEL HISTORY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불신이란 것도 서서히 그 벽이 무너지나보다.

결국엔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니까. 지독한 외로움도 녹아내려 이제는 심장을 터질 듯 뛰게 한다.

2011 _ “시간을 거슬러”

그 거리를 다시 돌아보는 건 조금 고통스런 일이었다. 단 하루뿐이었음에도 그 때가 아주 깊게 가슴 속에 새겨져있었다.

그녀와 함께했던 것들을 혼자서 다시 지켜보는 건 슬픈 영화를 연달아서 보는 것과도 같았다. 먹먹해지는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2011 _ “벚꽃 엔딩”

비가 그친 뒤,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흘렀다. 세상을 적신 빗물이 마르듯 기억도, 감정들도 서서히 말라 갔다.

찬우는 아침 식사를 뒤로 미루고 집에서 나왔다. 봄이 절정을 맞으면서 날씨가 점점 더 좋아졌다. 그는 무작정 인도를 따라 걸었다.

2012-2013 _ “드림 러쉬(Dream Rush)”

어깨에서 허리로 그려지는 매끄러운 곡선에 솜털을 만지듯 부드럽고 새하얀 살결이 파고든다.

마치 자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물결처럼 자연스러운 동작들에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다.

하지만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친 숨소리가 불길을 더욱 치솟게 만든다.

2013 _ “오직, 지금, 이 순간”

NOVEL HISTORY

혼자 산다는 건 참 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건 다정한 인사말이 아니라 가라앉은 적막함뿐이다.

오늘 하루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털어내 버릴 곳이 없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삼키고, 또 삼켜야 한다는 얘기다.

2014 _ “그리고 너만 남았다.”

마치 뿌리를 박고 내린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분명히 이 길에 먼저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인데도

그녀가 마치 이 봄의 시작을 알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15 _ “벚꽃”

SCENARIO HISTORY

S#11.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밤. 날씨 맑음. 찬우의 가게.

간판 불은 꺼져있지만 내부 불은 켜져 있는 가게. 찬우는 바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채워져 있는 잔을 보다 비워버린다.

잔을 채우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잔을 비운다.

다시 잔을 채우고. 창밖을 보는 찬우. 눈처럼 흩날리고 있는 벚꽃들.

찬우는 잔을 비우고 일어선다.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간다.

2014.04.17 _ "벚꽃 엔딩"

덕우의 말이 끝나자 윤아가 돌아본다. 아주 작게 미소를 짓는 윤아.

윤아 : 아니, 틀렸어요. 행복한 시간은 더 이상 내게 없으니까.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 윤아. 바깥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덕우. 몸을 날린다. 그의 눈에서 여자의 모습이 아래서부터 사라진다. 덕우는 있는 힘껏 손을 뻗는다.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눈송이가 떨어진다.

2014.05.17 _ "꿈을 꾸다"

SCENARIO HISTORY

S#3. 서울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나온 종성은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 핸드폰을 보며 걸음을 옮긴다. 몇 걸음 떼지 않아 맞은편에서 걸어온 수지와 부딪친다. 종성의 몸이 살짝 틀어지고 핸드폰이 떨어져 매끈한 바닥 위를 빙글빙글 돈다.

미간을 좁히며 수지를 보는 종성. 수지는 어느새 등을 보이며 멀어지고 있다.

종성은 미간을 좁힌 채 사라진 수지의 방향을 잠시 보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다. 액정을 켜자마자 다급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친다.

2014.11.20 _ “Return”

남자가 먼저 여자를 보며 침묵을 깬다.

남자 : 요즘… 만나는 남자는 있어?

여자가 고개를 든다. 무표정하다.

여자 : 답해야 돼?

남자 :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세탁기와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인다.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2015.10.05 _ “남과 여”

입술이 붉다. 붉은 입술은 메마르다 못해 갈라져있다. 오른쪽 뺨이 빨갛다. 칼날에 베인 것처럼 날카로운 생채기가 오른쪽 뺨을 가르고 있다. 크고 작은 붉은 흉터들이 얼굴 곳곳에 흩어져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붉게 물든 물이 화장실 바닥에 흩어진다. 붉게 물든 물이 욕조에서 흘러넘친다.

그녀는 장밋빛이 가득한 욕조 속에 누워있다.

물이 채워지는 소리와 물이 흘러넘치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인다.

2016.03.20 _ “RED”

SCENARIO HISTORY

찬미는 명철의 옆에 앉는다. 명철 대신 앞을 보며 입을 연다.

찬미 : 이젠 밤에도 날씨가 좋네요.

명철 : …그러게.

찬미 : 고민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명철은 답이 없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찬미가 정적을 깬다.

2016.04.20 _ “그대가 고프다”

남자는 여자가 보고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긴다. 건물 숲 사이로 차들과 사람들이 작게 움직인다. 여자는 난간에서 한 발 물러선다.

여자 : 온통 까맣기만 해.

2016.05.23 _ “Episode BLUE”

은아 : 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먹겠니. 결혼하고 애 낳으면 꿈도 못 꿀 텐데.

우재 : (밖을 바라본 채) 술만 먹고 댕기는데 무슨 결혼…

은아 : 애가 애가.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우재 : (은아를 보며) 큰일은 선배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다 진짜 객사합니다.

은아 : 그럼 와서 부조나 잘 해 임마.

우재 : (인상을 찌푸리다가 시계를 보고) …가요. 슬슬 가야 되요.

우재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은아는 우재를 올려다본다.

2016.10.03 _ “Love Affair”

SCENARIO HISTORY

유리 : 너무 밝은 빛에 있어서, 그곳이 끝없는 동굴이라고 생각 못했을 거야.

은기 : 그곳이 진짜 어둠뿐인지는 아무도 몰라. 빛의 계단일수도 있어.

유리 : 눈꺼풀 하나에, 스위치 하나에 넌 어디에 있었어?

답이 없는 은기. 말이 없는 유리.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진다.

2016.10.20 _ “Episode BLACK”

우주 : 다행이야. 꿈이어서.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우주를 물끄러미 보는 은하. 끈을 다 묶은 우주가 고개를 든다. 그에 맞춰 은하가 입을 연다.

은하 : 좋아해요. 많이, 너무 많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익숙한 정적. 약속이라도 한 듯 가까워지는 서로의 얼굴. 서로의 입술.

2017.05.17 _ “사랑 ; 초여름의 Romance”

이내 과거의 은지가 말을 꺼낸다.

과거 은지 : 따뜻하네. 스물아홉 번째 겨울도.

은지 : 그러네. 아무 것도 남지 않았지만.

과거 은지 : 다들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거야.

잠시 정적 후에

과거 은지 : 봄을 위해서.

2017.11.20 _ “괜찮아”

우진의 걸음이 멈춘다. 그의 시선 끝 벤치에는 그녀가 앉아있다. 가만히 선 그와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분홍빛 봄비와 방향을 잃은 걸음걸음의 한가운데에 네가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 가볍게 벚꽃잎이 흩어진다. 하늘거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벤치에 앉은 채 흩어지는 벚꽃잎들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주위로 벚꽃잎이 흩날린다.

2019.11.30 _ “Episode PINK”

SCENARIO HISTORY

THANK YOU

010-9923-7869
LoveKSHonly@naver.com